

지역 소식통

고창군,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

고창군이 구제역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3주간 관내 소 전업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백신항체 형성유무 확인과 구제역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반기 내 백신항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육우·젖소 전업농가가 이번 일제 검사 대상이다. 시료 채취는 군 공개입양소가, 항체 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담 추진한다.

시료채취는 농가당 5마리씩 채혈하고, 검사 결과 항체양성을 저조농가는 재검사를 실시해 법적 기준치(80%) 미만의 경우 과태료 처분과 중점관리대상농가로 특별관리 하는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일제검사는 상반기 일제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면역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전기 자동차  
이륜차 구매 지원 추진

부안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총 65대(승용 30, 화물 21, 이륜 14)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차 한 대당 지원 금액은 승용차 최대 1,500만원, 화물차 최대 2,200만원, 이륜차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다. 구매 지원신청은 7월 8일부터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대행접수 가능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7월 13일까지, 전기자동차(승용, 화물)의 경우 사업결산 소진 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부안군 환경과(063-580-438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정읍시, '인력난 해소' 청신호... 8월 중 지역 농가에 배정

정읍시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인 계절 근로(E-8) 체류 자격으로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필리핀 루피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되면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후후 MOU 체결 지자체를 확대하고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인력수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상반기 고용신청을 한 지역 내 농가에 8월 중으로 1차 배정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일환으로 연간 3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되면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후후 MOU 체결 지자체를 확대하고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인력수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민선 8기 정책구상은 현장 목소리로

### 심덕섭 고창군수, 주요 기관 등 방문... 군민 의견 적극 수렴해 군민행복 · 활력고창 만들 것

지난 7일 오후 고창군 심덕섭 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인으로 들어서자 "고생 많았다"며 취임을 축하하는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 군수는 격려해 준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며 "고창을 잘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가슴에 꼭 아로새기며 효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어르신은 "장마철 하천공사가 너무 잦아 흙탕물에 바지락이 다 죽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경로회장은 "타 경로당 보다 면적이 훨씬 큰 대도 확일적인 운영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도로화장과 주차장 설치 등도 건의했다.

심 군수는 한 마디라도 놓칠새다 수첩에 빼곡히 메모하며 원활한 해결을 약속했다. 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겨선 무더위 속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지난 7일 오후 고창군 심덕섭 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인으로 들어서자 "고생 많았다"며 취임을 축하하는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자가 염도 측정기 무료 대여

정읍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기 위해 염도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며 일상생활 속 건강 행거기에 나섰다.

시는 골다공증과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인 과도한 나트륨 섭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염도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일일 나트륨 권장량은 약 2,000mg 정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78mg으로 무려 2.4배 이상이 높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나트륨 섭취량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가정에서도 쉽게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염도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



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식생활 개선의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사업 참여율을 높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 원동력”

### 부안군, 정기분 재산세 40억 3000만원 부과

부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에 대하여 2,558,893건, 40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대비 1억 9천만(4.7%)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신축건물가액 기준액 인상으로 보인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1구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60%→45%)세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자는 21.7월부터 '22.5월 기간 동안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인 임대인이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

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 7월에 2분의 1,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로 전자승달과 자동차 중 하나만 신청한 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했다면 1,000원이 공제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한농연, 창립기념식 · 가족 한마당대회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7일 황토현 어울림센터에서 27주년 창립기념식 및 16회 가족 한마당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한농연 가족 한마당대회는 어려운 농촌환경 극복과 새로운 농업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회원과 가족들 간 돈독한 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 시·도의회 의원, 지역 농협장 농업인단체, 한농연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는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창립선언문 낭독, 내빈 축사 등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와 노래 공연이 이어졌으며, 행운권 추첨과 읍·면 지회별 부스 운영을 통해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농업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오병오 부회장과 회장 대행은 "농업인 회원들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가족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한농연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 출범된 민선 8기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정읍 농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